

국가별 동향



호주

닭고기는 ‘황반변성’ 눈 질병을 감소시킨다

닭고기 소비가 낮을수록 황반변성 발병 가능성 이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호주에서 발표되었다. 연구원에 의하면 “실험자 6,734명을 대상으로 닭고기를 11년 동안 꾸준히 섭취한 결과 연령과 관계없이 노인성황반변성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노인성황반변성은 직접적인 시각 손실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결과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닭고기는 경제적인 가격이 강점으로 닭고기내 포함하고 있는 높은 영양소와 불포화 지방산 및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물이 들어있는 완벽한 식품으로써 소비확대에 기대를 주고 있다.(WorldPoultry)



영국

가금복지의 새로운 기준 강화

유럽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국은 가금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의논하는 과정을 가졌다. 영농무부 장관

인 Michelle Gildernew은 영국은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과 함께 가금복지사업의 계획안과 문제점들을 개선해 빈약한 복지기준을 강화해 나간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따라서 향후 가금산업의 새로운 복지기준이 만들어지면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체계적인 복지기준을 정립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The Poultry Site)



말레이시아

양계농가 천재지변 보상체계 확립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괴된 양계농가의 피해를 정부와 은행간의 협조로 피해보상체계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에서 새로 임명된 농림부 Datuk Noh 장관은 “시행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양계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보상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며, 보험회사와 연계해 그 효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계약체결은 Agro은행과 실시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천재지변에 의해 황폐해진 농장이 다시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sian-agribiz)



미국

코넬 수의과 대학, 멀티미디어시스템으로 가금과 인류 건강을 보호한다



바이러스 질병은 농가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다. 호흡기 질병과 같은 질병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넬대학의 수의사는 피해를 최소화해 가금 질병을 빨리 진단 할 수 있는 DVD 시리즈 및 웹기반 상호 작용 할 수 있는가 진단 기구를 코넬대학의 수의사와 미국 농무부에 의해 교육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동물건강에 사육환경, 백신, 질병, 공중위생, 방역 및 교육을 전문화했고, DVD를 통해 웹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주소는 '<http://www.partnersah.vet.cornell.edu/vet>'에 확인 할 수 있다.(Cornell University)



케냐

양계산업 집중 육성, 투자자 유치 힘 쏟아

정부는 양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사업을 벌이고 있다. 양계산업의 예산안 배부를 늘렸고, 선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

자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종계수입을 권장하고 부화장 설립 등 산업적 기반을 조성해 선진 경영시스템 환경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증가와 실업률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며 실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반면, 케냐의 축산관련 관계자는 “정부가 공격적인 투자에 힘쓰고 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지역 사회와 공동체를 조직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먼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ThePoultrySite)



러시아

닭고기 생산, 소비량 증가추세

러시아의 닭고기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소비량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양계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 1/4분기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늘어난 86,000 톤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닭고기 소비량 역시 크게 증가해 2008년에 비해 37%의 급신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입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든 36.2%로 나타났다.(INTERFAX) 양계